

08 2027학년도 정시

정시 원서 점검표

세 장을 내기 전에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먼저 넷	3
03	나머지 넷	4
04	언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한 장으로 보는 여덟 가지** — 자격·군·점수·일정 넷과 판단 넷
- ◆ **수시에 등록한 곳이 있으면 정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 ◆ **충원이 한 명도 안 되는 곳이 33%** — 예비로 되겠지가 안 되는 까닭
- ◆ **수능 직후부터 2월 추가모집까지 달력으로 보는 차례**

01 · 숫자부터

세 장뿐입니다

「정시 원서 마감이 내일입니다.」

이 자료는 그 전날 보시는 것입니다. 정시는 **세 장뿐**이라 한 장의 무게가 수시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못 바꿉니다.

앞 일곱 편에서 다룬 것을 **한 장으로** 모았습니다.

정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집 인원	42,919명
쓸 수 있는 원서	3장 (가·나·다군)
경쟁률 중앙값	5.7:1
총원율 중앙값	42%
총원이 한 명도 안 되는 곳	33%

맨 아랫줄을 기억하십시오. 셋 중 하나는 예비가 안 움직입니다. 「떨어져도 예비로 되겠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정시 집계. 개별 대학·학과의 값은 실지 않습니다.

02 · 먼저 넷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하나 — 지원 자격

- ☐ 정시 요강 을 봤는가 — 수시 요강이 아니라
- ☐ 응시 과목에 지정 이 있는가 (미적분·기하·과탐)
- ☐ 한국사 를 응시했는가 — 필수입니다
- ☐ 수시에 등록한 곳이 없는가 — 있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무겁습니다.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총원으로 등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 군

- ☐ 세 곳의 군 을 그해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같은 군에 두 곳 이 들어 있지 않은가
- ☐ 세 칸이 다 채워졌는가
- ☐ 다군 을 남는 한 장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셋 — 점수

- ☐ 성적표의 표준점수·백분위 를 적었는가
- ☐ 세 곳의 반영 비율 을 확인했는가
- ☐ 환산점수 를 직접 계산해 보았는가
- ☐ 작년 컷과의 거리 로 견주었는가

넷 — 일정

- ☐ 군별 원서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아는가
- ☐ 실기·면접 이 있으면 날짜가 겹치지 않는가
- ☐ 군별 발표일 과 등록 마감 을 달력에 적었는가

마지막 항목을 꼭 하십시오. 앞 군 등록 마감과 뒤 군 발표가 겹치면 그 자리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아셔야 합니다.

03 · 나머지 넷

판단 — 여기서 갈립니다

#	무엇을	왜
5	세 장을 총으로 나눴는가	다 상항이면 그해가 빡니다
6	한 장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인가	정시 뒤에는 추가모집뿐입니다
7	세 곳의 순위 를 가족이 정했는가	충원 전화는 시간이 짧습니다
8	붙으면 갈 자리인가	등록하면 그해가 끝납니다

6번을 특히 지키십시오. 정시는 수시와 달리 뒤에 남는 것이 2월 추가모집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모집은 어디가 얼마나 뿔을지 그때 가야 합니다.

그러니 세 장 가운데 하나는 「여기는 된다」 싶은 곳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 상항으로 쓰는 것은 「재수를 계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 그게 계획이라면 괜찮고,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순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앞서 다룬 대로 앞 군 등록 마감과 뒤 군 발표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붙으면 저기는 포기한다」가 정해져 있어야 그 며칠을 흔들리지 않고 넘깁니다.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때 흔들립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정시 요강.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04 · 언제 무엇을

달력으로 보는 차례

언제	해야 할 것	늦으면
수능 직후	가채점 · 정시 선 잡기	수시 대응이 늦습니다
성적표 뒤	표준점수 · 백분위 적기 · 환산점수 계산	원서를 못 잡니다
원서 전	군 확인 · 세 칸 채우기 · 순위 정하기	못 고칩니다
원서 기간	마감 시각 · 서류 · 연락처	마감으로 끝
발표~충원	전화 받기 · 등록 마감 지키기	시간 단위
2월	추가모집 공고 확인	그해가 끝납니다

둘째 줄이 정시의 핵심 작업입니다. 성적표를 받고 하루를 들여 환산점수를 계산하시면 나머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격·군·마감은 요강을 읽으면 나오고, 환산점수는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컨설팅이 값을 하는 자리는 「세 칸에 무엇을 넣을까」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 오신 분과의 상담이 훨씬 깊어집니다 — 안 해 오시면 첫 시간을 계산으로 씁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정시 원서를 앞두고 하시는 질문

Q. 마감 직전 경쟁률을 보고 바뀌도 되나요?

정시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수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더 심합니다. 모두가 같은 점수 자료를 보고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낮아 보이는 자리에 다 같이 몰립니다.

그리고 정시는 군이 걸려 있습니다. 급하게 다른 대학으로 옮기면 군이 겹쳐 못 쓰게 될 수 있고, 반영 비율이 달라 환산점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그 계산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쓸 자리는 미리 정하고, 마감 직전 숫자는 「세 칸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데」만 쓰십시오. 칸 자체를 갈아 끼우지 마십시오.

Q. 세 장을 다 써야 하나요?

세 칸이 다 채워지는 편이 낫습니다. 수시와 다른 점입니다.

수시는 여섯 장이라 맞는 자리가 넷이면 넷만 쓰셔도 됩니다. 정시는 셋뿐이고, 군이 다르면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칸을 비우면 기회가 3분의 1 줄어듭니다.

다만 정시 선보다 한참 낮은 곳을 억지로 채우지는 마십시오. 붙으면 가야 하고, 등록하면 추가모집도 못 씁니다.

그러니 「붙으면 갈 만한 곳」으로 세 칸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칸을 채울 후보가 안 나오면 후보를 더 찾으십시오 — 앞 편에서 다른 대로 반영 비율이 나에게 맞는 곳을 찾으면 후보가 늘어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시에서 앓는 것도 대개 실력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기 전 하루가 세 장을 살립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컷·경쟁률·군은 실지 않습니다. 요강과 일정은 대학·연도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대학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